

<새 달력>

타다닥. 트르륵. 타다닥. 트르륵.

끊임없이 달력을 찍어대던 기계도 잠시 운영을 멈추는 명절이지만, 아버지의 달력공장은 온전한 휴일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던 두어 달은 늘 쏟아지는 주문량 때문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 어떡하든 고객들의 주문량을 맞춰주기 위해 공장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시던 아버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집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마저도 부랴부랴 씻고 갈아입을 옷만을 대충 챙기신 후, 우리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녘에 또 공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바쁘고 아프기만 하던 겨울은 어린 저에겐 매서운 날씨보다 더 시린 계절로만 여겨졌습니다.

설날 무렵이면 우리 형제는 종종 엄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달력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면도할 시간도 없으셨는지 아버지는 몰라보게 수척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작은 책상과 간이침대에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를 채우고도 남을법한 많은 선물들이 킁킁이 쌓여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 두 분밖에 되지 않던 직원들도 고향집에 내려가시고 달력을 인쇄하던 육중한 기계도 침묵하는 조용한 공장에서 아버지와 엄마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엄마도 변변히 가본 적 없는 백화점에서 사 오셨다는 상품권.

엄마가 시골 외할머니에게 부탁드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쫓아가서 받아 오신 꽃감과 호두도 있었고, 막내삼촌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참 실랑이 하신 후 그나마 싸게 사오셨다던 소고기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가죽지갑과 허리띠도 있었고 식용유와 참기름도 비누와 치약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어떤 것은 금색 보자기에 어떤 것은 상자를 곱게 접어 정성스레 포장하셨습니다.

어느 해에는 선물 포장을 하시던 부모님 곁에서 너무도 배가 고파 동생과 참

치 캔과 햄을 몰래 뜯어 먹다가 아버지께 혼쫓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을 다 끝내시고 나서야 차디찬 공장 바닥에서 김치도 없이 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던 우리 가족.

몇 대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그 오토바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신 뒤에야 아버지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아버지의 공장에 있는 맛있는 먹을거리와 폼 나는 좋은 것들을 왜 우리는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일까 궁금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IMF가 찾아왔고 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10년을 넘게 같이 일해 와 제게도 삼촌 같기만 하시던 직원 두 분에게 해고를 통보하셔야 했던 날, 공장 구석에서 혼자 소주를 드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간혹 저와 동생이 나가 아버지의 일손을 돕기만 해도 거뜬할 정도로 주문량은 이미 반 토막 난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그 해도 선물 포장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달력 사는 사람도, 주문하는 업체도 없는데 선물은 뭐 하러 하세요? 김 씨 아저씨랑 송 씨 아저씨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으시고 나가셨다고 하시던데 그것부터 챙겨 드려야 하는 거 아녜요?”

당장 당신의 공장을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지경에도 타인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싸시는 아버지가 미련스럽게만 보여 소리를 지르며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 가족 같았던 직원들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밀린 채 내보내면서, 내도 이것을 하고 싶어 이러는 줄 아나? 남들이 하나까! 여태껏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단 말이야. 이놈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지 이런 관행은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공장 문 닫을 때까지는 달력 찍는 일도 선물 하는 일도 할 수 밖에 없는 거!”

1월 2월 3월…….12월.

속지와 바깥지까지 합쳐 아버지가 빠 빠지게 12장을 넘게 찍어 내 일 년치를 만드셔도 고작 1000원도 남지 않던 달력.

재고로 쌓여 있던 달력 곁에 놓여 있던 달력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던 그 값비싼 선물들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나 봐 오던 억 소리 나던 금액의 뇌물과 결코 뿌리 뽑히기는 힘들 거라던 관행들은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의 고위관료나 교육계의 일만이 아닌 아버지의 손바닥만 한 공장까지 지배하고 있는 놀랍도록 무서운 일임을 말입니다.

매해 짝어내는 달력의 개수는 줄어만 갔고, 포장할 선물도 간소해져 갔지만 아버지는 월세도 근근이 내던 달력 공장을 결코 놓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성인이 된 동생과 제가 공장일과 선물 구매부터 포장일 까지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할 줄 아는 거라곤 달력 짝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 어찌겠어. 큰 아들 취직하면 그만 할 것이니. 내 걱정은 말어!”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취직을 하면 갑갑하게 둘둘 말려져 있던 달력들과 더 지긋지긋하던 선물더미에서 아버지가 벗어나실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또 동생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면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을 하는 날까지라시며 혼자서 꾀꾀하게 달력공장을 지키셨습니다.

“큰 아들 이것 좀 봐라! 이게 무슨 일이여? 선물 보내지 말라고 우편물 같은 것이 왔네. 진짜 안보내도 되는 거? 그란다고 어찌 매해 보내던 선물을 안 보낼 수가 있남? 작은 것이라도 보내는 게 맞겠제?”

작년 설을 앞두고 아버지의 달력 공장으로 날아 온 우편물.

아버지는 반신반의 하는 표정으로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선물을 보내면 범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회사에서 절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딱 하니 써져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의심스런 눈빛으로

“정말이여? 정말? 그런데 수십 년씩이나 이어 온 케케묵은 관행이 이리 하루 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거? 내 참말로 믿을 수가 없네. 진짜 맞는 거여? 선물 안 보냈다가 그나마 얼마 안 남은 거래처도 끊기는 거 아니여?”

명백한 문서 한 장도 없이, 누군가의 명령 하나 없이도 삼십년이 넘도록 당신을 괴롭혀 왔던 관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버지는 쉽사리 믿지 못하셨습니다.

TV를 인터넷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해 드린 뒤에야 아버지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아버지는 감격하셨는지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말인가 보네. 참말! 매해 보내는 선물만 안 보내도 숨 좀 쉴 것 같았다. 이제 중말 수십 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으네. 세상이 변하긴 변해가나 보다…….”

예의 상 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성의 표시나 인사치레라는 허울 속에 포장 되어 있던 청탁은 액수나 대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두를 병들이고 있던 수많은 청탁들.

피와 땀을 다 해도 하루살이조차 버거웠던 어느 소시민 가장에게조차 청탁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군가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비밀스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삶을 꾸준히 괴롭히고 있던 악행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변한 세상이었기에.

삼십년이 넘도록 설날에도 문을 닫지 못하던 아버지의 달력 공장은 첫 휴식을 허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기계도 작동을 멈추고 늙은 아버지도 일을 내려놓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2017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매해 아버지는 달력을 만들어 오고 계시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만들어진 2017년의 달력은 아버지께 가장 특별한 의미의 달력으로 남았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해진 세상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만드신 진정한 새 달력이었기 때문입니다.